



재외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문학

3차시: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한국현대문학





학습목표

01 한국현대문학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?

💡 현대문학을 가르칠 때 유의점을 안다.

02 식민지 시대

💡 식민지시대문학을 가르칠 때의 유의점을 안다.

💡 식민지시대문학 가운데 가르칠 만한 작가와 작품을 이해한다.

03 해방 후

💡 해방 후 문학 가운데 가르칠 만한 작가와 작품을 이해한다.





학습목표

04 지금의 한국현대문학

💡 지금의 현대문학을 선별하는 방법을 안다.



01

한국현대문학에 어떻게
접근할 것인가?



01 한국현대문학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?

- ❁ 한국현대문학은 가까운 시대의 역사이다.
- ❁ 한국현대문학은 현대(모던)의 문학과 지금의 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. 이 구분은 현재의 삶의 방식, 역사적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.
단, 2017년의 학습자에게 지금의 문학은 2000년대 또는 1990년대 이후의 문학으로 생각된다.



01 한국현대문학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?

- ❁ 한국현대문학이 발생한 시기는 현재의 한국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.
- ❁ 따라서 현재의 한국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.
- ❁ 한국현대문학 작품의 경우 현대 맞춤법으로 수정하여 읽을 수 있다.



01 한국현대문학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?

- ❁ 한국현대소설 작품의 경우, 축약은 곤란하며, 부분으로 읽히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. 줄거리만으로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.
- ❁ 한국고전문학 작품의 경우 학습자의 연령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읽힐 수 있으나, 한국현대문학 작품의 경우 학습자의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.



01 한국현대문학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?

- ❁ 한국현대문학의 경우, 시대별로 읽힐 수도 있고, 주제별로 읽힐 수도 있다. 주제별로 읽힐 경우 '식민지 상황', '분단', '현대화의 폐해' 등이 키워드가 된다.
- ❁ 학습자와 교수자를 함께 고려할 때, 1945년 이전보다는 1945년 이후에 나온 작품을 읽히는 것이 좋다.



01 한국현대문학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?

- ❁ 한국의 국어/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을 기본으로 삼아도 된다. 참고서도 참고할 수 있으나 최소한으로 한다.
- ❁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해 소설을 읽히는 것은 좋지 않다.
- ❁ 표준적인 해석은 있을 수 있지만, 정답은 없다. 교수자의 개입을 최소로 하고, 학습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편이 좋다.



02

식민지 시대



❁ 시

김소월

- 기본적으로 '이별의 아픔'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.
- 언어도 현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읽히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.
- 하지만 기본적으로 '이별'을 바탕으로 깔고 있어, 경험해 보지 않은 학생에게는 와 닿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한다.
- <진달래꽃> <산유화> <초혼> 등



❁ 시

한용운

- 불교적 세계관과 식민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좋은 시이기는 하나 쉽지는 않은 시이다.
- <님의 침묵>이 대표적이지만 어린 학생에게는 어렵다. <복종> 같은 시가 접근하기 더 쉽다.



❁ 시

이상화

- <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>가 대표적이다.
- 다만 낯선 어휘들이 있어 쉽게 읽히지는 않는다.
내용상으로는 어린 학생에게도 읽힐 수 있다.



❁ 시

이상

- 문학사적으로는 중요한 시인이지만, 난해한 부분이 많아 널리 읽히기는 어렵다.
- 다만 <거울> 정도의 시는 청소년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. 이 경우 현상을 묘사하는 시로 읽고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

❁ 시

운동주

- 운동주의 시들은 대체로 평이하다.
- 어느 연령의 청소년이 읽어도 나이만큼 읽을 수 있다.
- 시대적 배경이나 운동주의 삶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문학 읽기에 오히려 방해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.



소설

김동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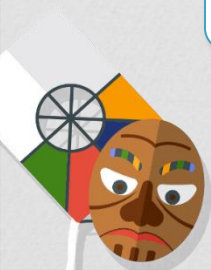
- 대표적인 작가이기는 하지만, 청소년에게 읽히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작품이 많다.
- 고등학생 정도라면 <감자>를 읽혀도 좋다.
인간의 욕망과 시대적 특성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.



소설

염상섭

- 대표적인 작가이기는 하지만, 흥미 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은 많지 않다.
- <만세전> 정도를 읽을 수 있다.
일본 유학생에 비친 조선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.
주인공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.
- <삼대>가 대표작이나 청소년이 읽기에는 무리가 있다.



소설

나도향과 현진건

- 1920년대라는 시대를 읽거나, 불평등한 인간 관계를 읽는 데는 도움이 된다.
- <병어리 삼룡이>(나도향) <운수 좋은 날>(현진건)



소설

채만식

- <탁류>와 <태평천하>가 대표적인 작품이다.
- 즐거리를 중심으로 읽는다면 <탁류>가 읽기가 좋지만,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다. 즐거리 중심으로 읽으면 흥미 없지만, 세부적인 부분들의 흥미는 <태평천하>가 좋다.



소설

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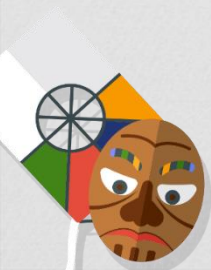
- 난해한 소설들이 많아 유명하지만 쉽게 읽을 수는 없다.
- <날개>가 대표적인 작품이고 그나마 읽기가 쉽지만 굳이 읽힐 필요는 없다.



소설

김유정

- <봄봄> <동백꽃> 등이 대표작이다.
- 시대적 상황과 연관 지어서는 <만무방> <금 따는 콩밭>이 더 유익하다.



소설

박태원

- <천변풍경>
- 식민지 시대 경성 주변부의 삶을 보고 싶을 때 권한다.



03

해방 후



소설

김동리

- <무녀도>가 대표적이고 ‘한국적’인 작품으로 많이 읽힌다.
성장 배경이 다른 재외 동포 청소년에게 반드시 읽힐 필요는 없다.



✿ 소설

황순원

- <소나기>가 대표적이다.
청소년의 감성에 가장 맞는 작품이다.
- 남북의 대립을 우정으로 넘는 <학>이 읽을 만하다.

최인훈

- <광장>이 대표적이지만, 청소년이 읽기에는 쉽지 않다.
후에 다시 읽는다는 전제로 읽힐 만하다.



소설

김원일

- <노을>을 읽을 수 있다.
장편이고 분단의 상처를 다루고 있어, 고등학생 정도에 적합하다.



소설

윤흥길

- <장마>는 분단의 상처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아 어린 청소년도 읽을 수 있다.
- <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>의 경우,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나, 배경을 잘 몰라도 소시민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.



소설

황석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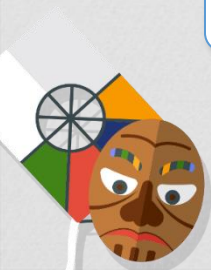
- 떠돌이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한 <삼포 가는 길>이 읽을 만하다. 다만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지도가 필요하다.



소설

이문열

- <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>
매우 복잡한 소설이어서 어떤 측면에 초점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읽힐 수 있는 소설이다.
4.19와 5.16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읽을 수도 있고, 권력을 그리워하는 소시민의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다.



소설

박완서

- <엄마의 말뚝1>이 읽을 만하다.
1930년대 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,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.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읽으면 더욱 좋은 소설이다.



✿ 소설

이문구

- <관촌수필> 연작이 읽을 만하다.
다소 지루한 부분도 있고, 또 충청 지방의 토속어도 많이 나와 쉽게 읽히지는 않으나, 분단을 전후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.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.



❁ 시

김춘수

- 대표적인 시 <꽃>이 읽을 만하다.
정체성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시이기
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.



❁ 시

김수영

- 4.19와 함께 했던 시인으로, <푸른 하늘을> <폭포> 등의 시를 같이 읽을 수 있다.
- <풀>은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도 좋으나,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고, 학생들의 느낌에 맡겨야 한다.



❁ 시

천상병

- <귀천> 정도를 읽힐 수 있다.
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 장점인 시이다.



❁ 시

김지하

- <오적>으로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 알려져 있으나, 현실을 반영한 서정시가 좋다.
- 시집 <타는 목마름으로>에 실려 있는 시들이 읽을 만하다.



04

지금의 한국현대문학



- ❁ 지금의 한국현대문학에서 읽을 만한 작품을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. 아직 한국에서도 문학사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이 경우 교수자가 선별할 필요가 있다.
- ❁ 교수자가 선별할 경우, 대표적인 문학상 수상작을 선별할 수 있다. 소설의 경우 이상문학상, 동인문학상 등이 있다.



❁ 시의 경우는 문학상 수상시집 이외에도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등에 매일 소개되는 시들을 참고할 수 있다.



Q.

현대문학을 읽을 때 유의점이 무엇
인가?



Q. 현대문학을 읽을 때 유의점이 무엇인가?

- 💡 한국의 상황과의 관계를 잘 이해시키도록 하며, 교수자의 시각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다.

Q.

지금의 문학을 선별하는 기준은
무엇일까?



Q. 지금의 문학을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?

💡 전적으로 교수자에게 달려 있으나, 인정받은 작품을 우선으로 한다.



학습정리

- ◆ 현대문학에 접근하는 방법
 - 문학이 시대와 맺는 관련에 유의한다.
 - 가능한 한 원문을 읽힌다.
- ◆ 식민지시대
 - 식민지시대 문학에서는 일제 강점 상태임을 고려한다.
- ◆ 해방 후
 - 해방 후 문학에서는 분단이라는 조건을 고려한다.





학습정리

◆ 지금의 현대문학

- 지금의 현대문학을 선별할 때는 지명도를 고려한다
- 교수자가 고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

